

인생을 즐기는
사람을 위한

Bon
Vivant
봉비방

월간 지은
시즌 5 no. 1



방구석 파리 산책
파사주

"PASSAGES PARISIENS"



yOUNA.L

시간은 지나가지 않지만 우리는 지나간다

길을 가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큰 물고기가 빠끔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파사주를 발견하면 발길이 저절로 그리로 향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백화점에서 살 것만 딱 사고 나오는 목표 직진형 파워 J지만 파사주만은 예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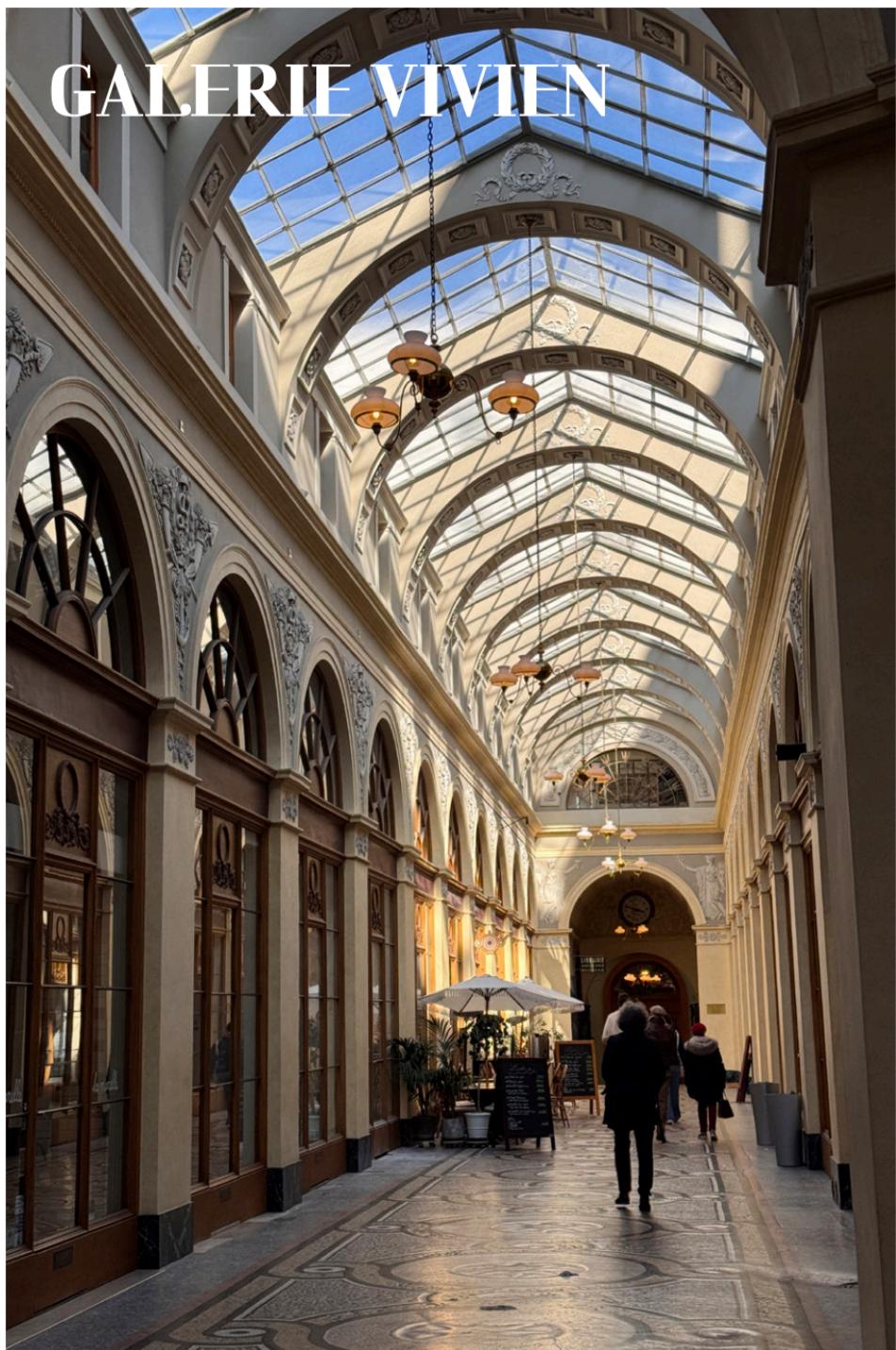
파사주는 통로라는 뜻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작은 골목부터 건물의 일부를 뚫어 만든 복도형까지 모두 파사주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통상 파사주라고 하면 파리 우안, 오페라 구역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형 파사주들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리스식 신전 기둥 장식에 돈을새김으로 이름을 박아놓은 거창한 입구가 딸린 이 파사주들은 19세기 초반에 이름을 날렸던 쇼핑몰이었다. 비비엥, 주프루아, 파

노라마, 그랑 세르 등 이름도 다양한 파사주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새처럼 사뿐히 올라앉은 철골조 유리 지붕이었다. 가느다란 철골 사이에 유리를 달아놓아 딱 보면 온실이 연상되는 철골조 지붕은 당시로서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최첨단 건축 공법이었다. 기차역부터 에펠 탑에 이르기까지 철골 건축물의 시대였던 19세기, 파사주는 이 놀라운 지붕을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꼭 들러야 하는 명소였다.

지금도 중세 성당의 뾰족탑처럼 높이 솟은 유리 지붕으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날에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이니, 처음 파사주에 들어선 19세기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유리로 된 천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빛, 말끔하게 타일이 깔린 바닥, 통로 여기저기에 배치된 고전적인 장식, 양쪽으로 나란히 정렬한 조명등, 큰 유리창에 번호가 붙어 있는 똑같은 가게들… 19세기인들에게 파사주는 동경의 세계였으리라.

GALERIE VIVIEN



PASSAGE JOUFFROY

PASSAGE JOUFFROY 10

HOTEL RONCERAY

LE CAFE ZEPHYR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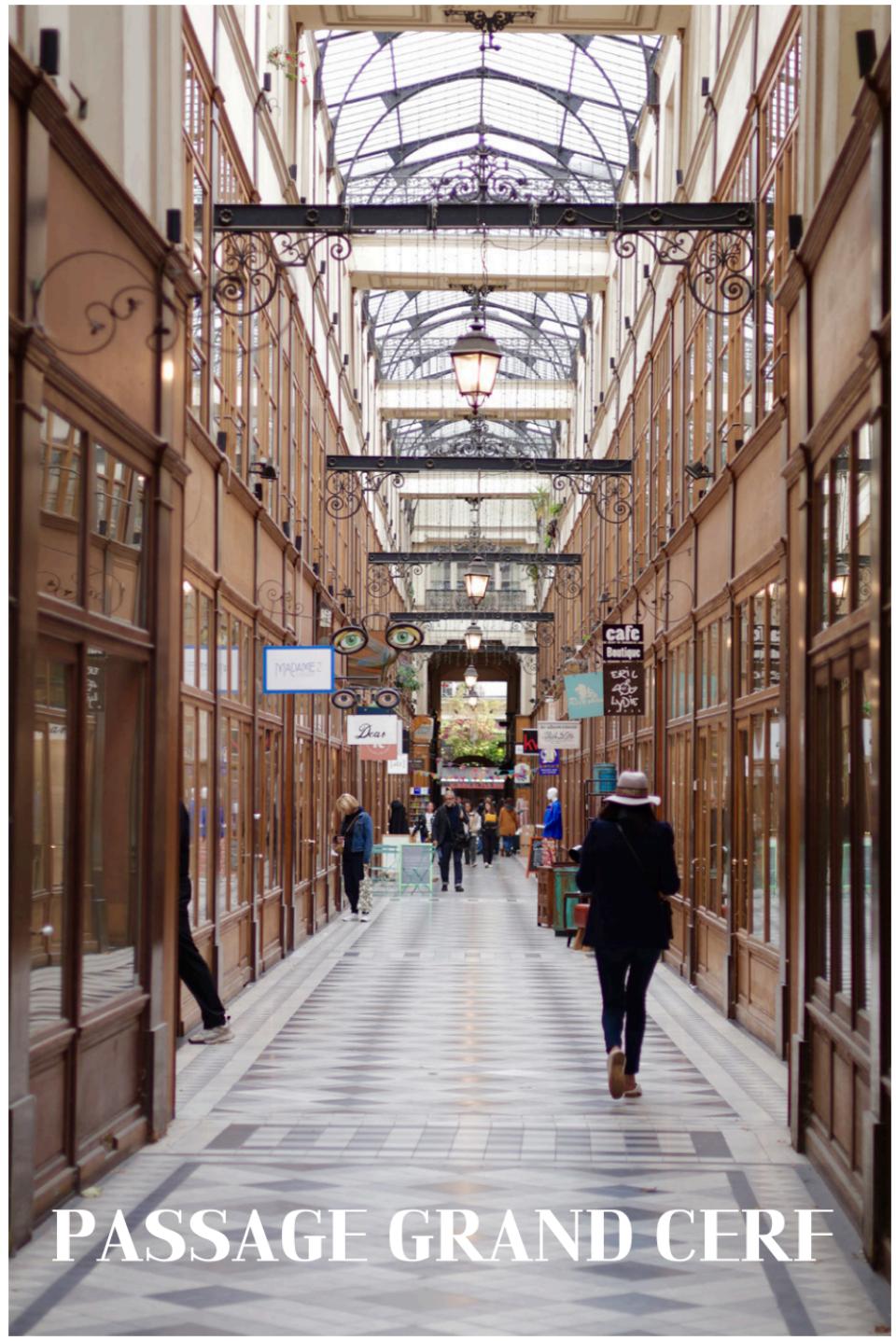


CHOI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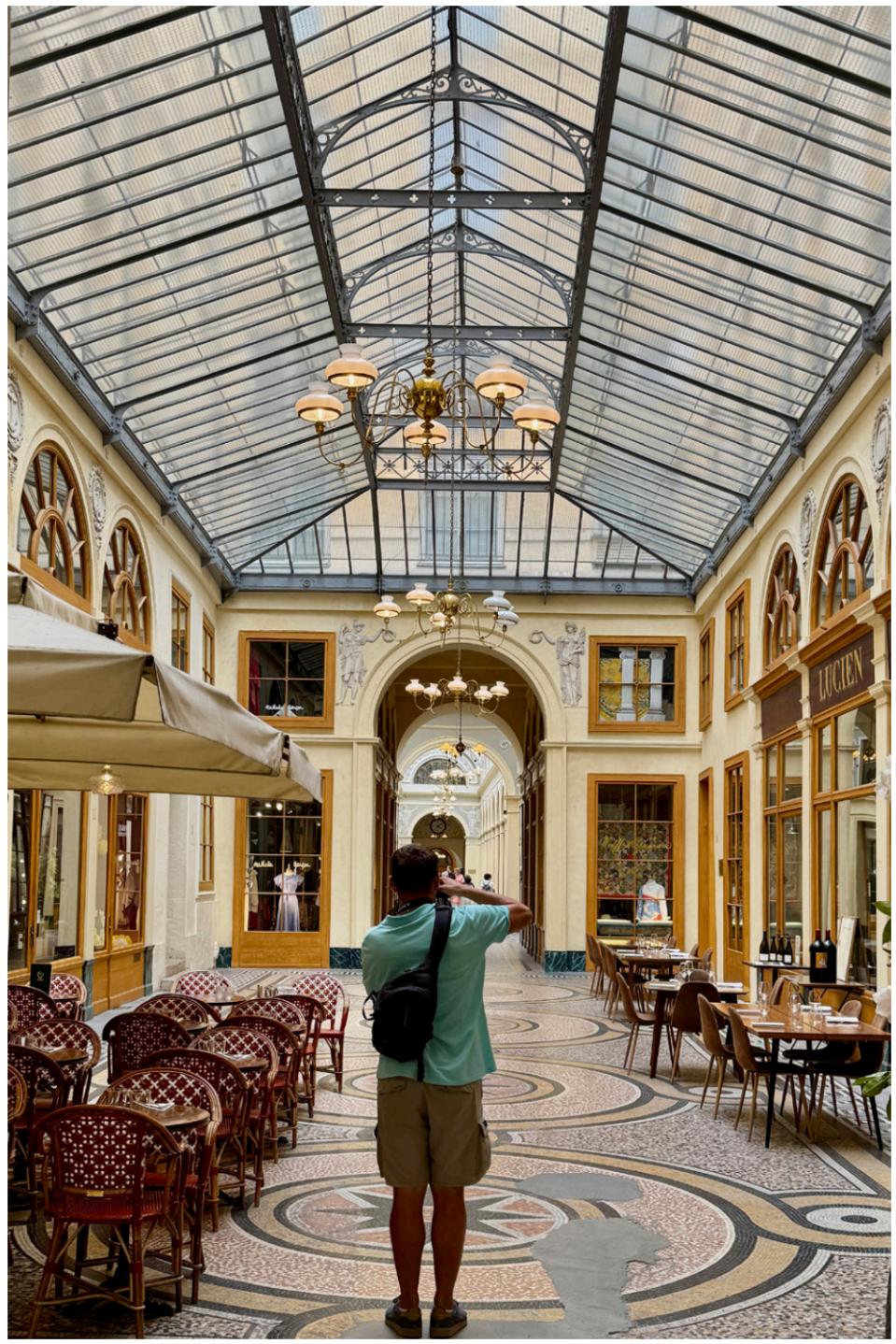
프록코트에 실크 해트를 쓴 신사들은 파사주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투자처를 의논했고,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은 가게 진열창에 놓인 모자와 장갑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거다. 자동차와 가스등, 전기 등 기술이 만들어낸 신세계가 몇백 년간 변화가 없었던 삶을 호떡 뒤집듯 바꾸어놓으리라는 기대로 충만하던 시대에 파사주는 모던 파리의 상징이자 산업 사회의 태동을 알리는 힘찬 깃발이었다.

잘 차려입고 파사주를 산책했던 19세기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파사주는 여전히 파리 풍경의 일부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최신식 쇼핑몰의 자리는 진즉에 내려놓았지만,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고 통로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과 바쁜 걸음으로 파사주를 지나는 직장인, 쉬는 시간에 통로로 나와 담배를 피는 가게 직원들, 여기저기 를 기웃거리는 나 같은 산책객들로 붐빈다.

물론 변한 것도 많다. 파리에서 유일한 열십자형 파사



PASSAGE GRAND CERF



주로 인기를 모았던 브라디 파사주는 리틀 인디아로 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브라디 파사주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향신료가 범벅된 뜨거운 냄새가 흑 얼굴을 때린다. 파사주 양쪽에 빼곡히 들어찬 인도 마트, 특산품점, 파키스탄 요리집에서 풍겨 오는 냄새다. 인도 발리우드 영화처럼 어디선가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면 마트와 식당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이 통로에서 한바탕 춤을 출 것만 같은 분위기가 떠돈다.

19세기 파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쇄소인 그라뵈르 스테른이 있던 파노라마 파사주(아직도 통로에 인쇄소 간판이 남아 있다)는 이름 그대로 파노라마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요식업의 격전지가 되었다. K-컬처의 유행을 보여주듯 한국말 그대로 ‘삼겹살’을 크게 써 붙인 한국 음식점과 일본 라면집, 몇 달치 예약이 밀려 있다는 프랑스 레스토랑이 큰소리로 오늘을 외친다.

그럼에도 파사주 구석구석에는 시간이 슬쩍 눈을 감은 듯한 분위기의 가게들이 숨어 있다. 어디선가 나이가

PASSAGE BRADY





PASSAGE PANORAMA

지긋한 수집가가 나타나 소중하게 보관해온 로마 시대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 감정을 의뢰할 것만 같은 동전 골동품 상이나 칸칸이 박스가 달린 진열창이 작은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엽서 가게, 복원을 기다리는 오래된 그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복원 아틀리에, 프렌치 자수실을 늘어놓은 수예품점, 고지도상과 중고책 서점….

그중에서 나는 특히 파노라마 파사주 안의 엽서 가게를 좋아한다. '사랑하는 마르셀, 나는 지금 막 카이로에 도착했어' 같은 사연을 만년필로 빼곡히 적은 엽서를 읽다 보면 프랑스어를 배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손으로 색칠한 19세기 중엽의 고색창연한 크리스마스 카드나 예술 작품처럼 공들여 만든 20세기 초반의 입체 카드를 보면 사고 싶어 손이 오그라든다. 아트박스에서 쓰지도 않을 편지지와 엽서를 열심히 사 모으던 초등학생이 이제 어른이 된 것이다.

파노라마 파사주에서 몽마르트르 대로를 건너면 바로 연결되는 주프루아 파사주에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

는 고서점이 있다. 유리 진열창을 따라 분야별, 주제별로 판화들을 주욱 늘어놓아 행인들의 눈길을 끄는 서점, 리브레리 드 파사주^{librairie de passage}에서는 19세기의 유명 판화가였던 귀스타브 도레의 오리지날 삽화나 과일과 꽃을 정교하게 그려놓은 18세기 말엽의 자연 백과사전의 삽화를 구할 수 있다. 액자에 끼워놓으면 아주 근사할 판화들이다.

나는 이곳에서 1900년 만국박람회의 한국관 일러스트가 실린『르 프티 주르날』 일요판과 당시의 백화점 풍경을 풍자한 캐리커처가 담긴『라 카리카튀르』를 구해서 내 책『부르주아의 시대 근대의 발명』에 도판으로 썼다. 1882년 11월 11일, 1900년 12월 16일 일요일이라는 발행 날짜만 봐도 마음 한 켠이 웅장해지는 나의 보물들이다.

로마 시대부터 천 겹의 케이크처럼 시간을 쌓아온 도시, 그래서 백 년이 하루 같은 도시 파리에서 사람들은 과거가 남긴 깁질에 부지런히 오늘을 채우며 살아간다.

LIBRAIRIE
DU PASSAGE
Gribaudo-Vandamme

Librairie du Passage

LIBRAIRIE
ANCIENNE
ET
MODERNE
VENTE
ACHAT
ÉCHANGE
DE LIVRES
ET
BIBLIOTHÈQUES





*Cartes Postales
Lettres Anciennes*

Maison PRINS depuis 1978

STERIN Graveur



ORAMAS
ATELIE

PHILATELIE
ACHAT VENTE
ESTIMATION
Mc C. LABRE

ASTAIR







RELIURE LIBRAIRIE ANCIENNE & MODERNE

Romans Divers prix indiqué à l'intérieur



LIBRAIRIE
ANCIENNE
MODERNE

45

LIBRAIRIE

ACHAT VENTE DE BIBLI

45

A PETIT SIR

Sickert



파사주 안에 고속 인터넷 선을 연결하고 통로의 가스등 안에 LED 전구를 단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 덕분에 파리 밤거리의 색이 변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스등 시대의 파리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도!

거대한 식당 환풍구는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빼고 천장을 뚫어 배기관을 설치한다. 불편한 데다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껍질을 버리지 못하는 소라게처럼 아무도 파사주를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정성스럽게 보존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특별히 귀여워하지도 않지만 굳이 쫓아낼 생각도 없는 마당 고양이처럼 대한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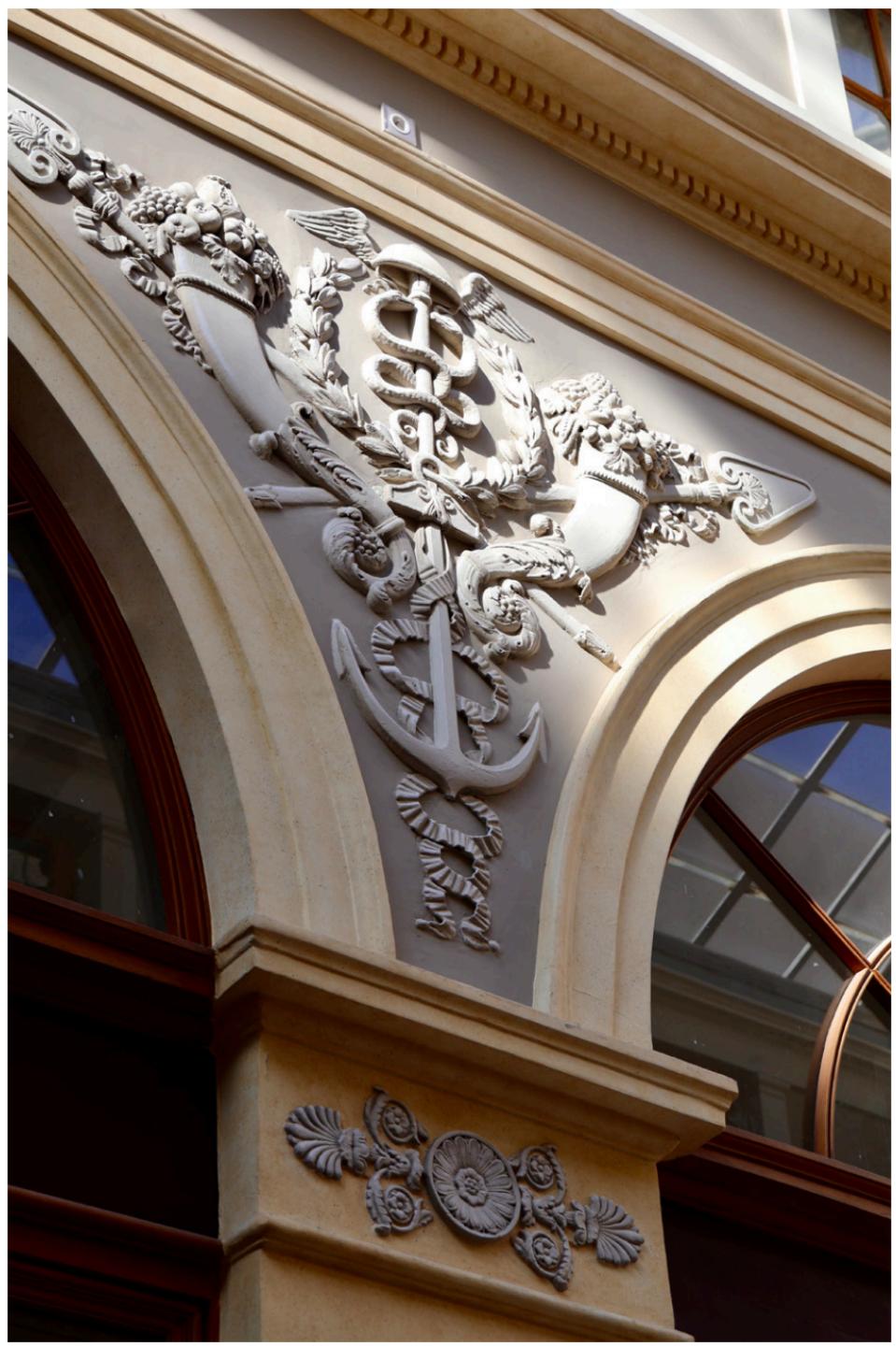
검은 먼지가 앉은 돌벽과 우수수 내려앉지 않을까 걱정되는 금 간 유리 천장, 오래전에 멈춰버린 벽시계, 페인트가 비늘처럼 일어난 벽 아래서 다들 태연히 밥을 먹고 물건을 산다. 분명 지저분하고 케케묵었다. 파리의 현실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 무심하고 너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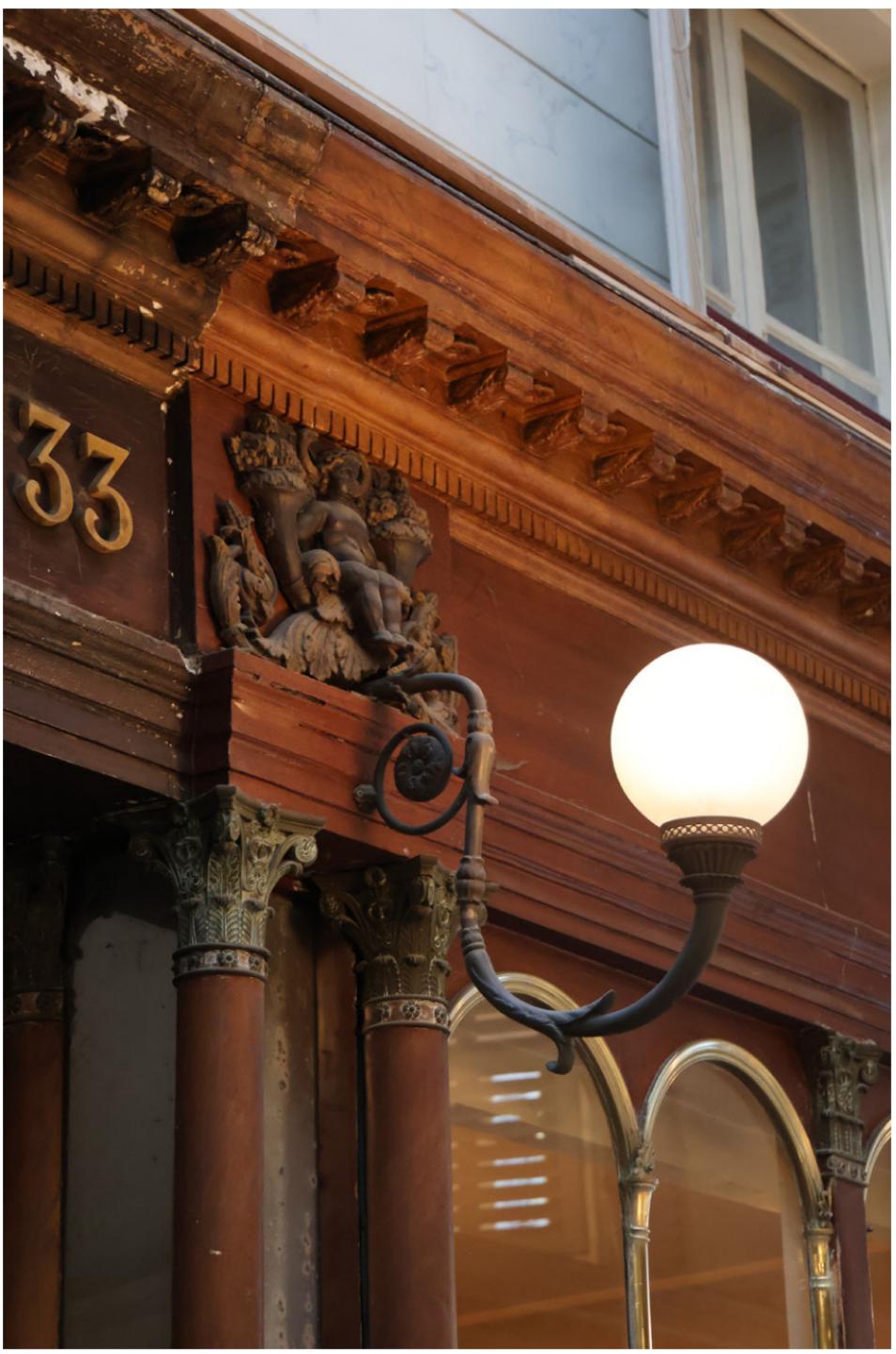
OPTIQUE
1880
UN SIECLE DE LUMIÈRE

NICE

Vos Beaux Yeux
CHARLES MOSA
SPECIALISTE DES LUNETTES VINTAGE ET DE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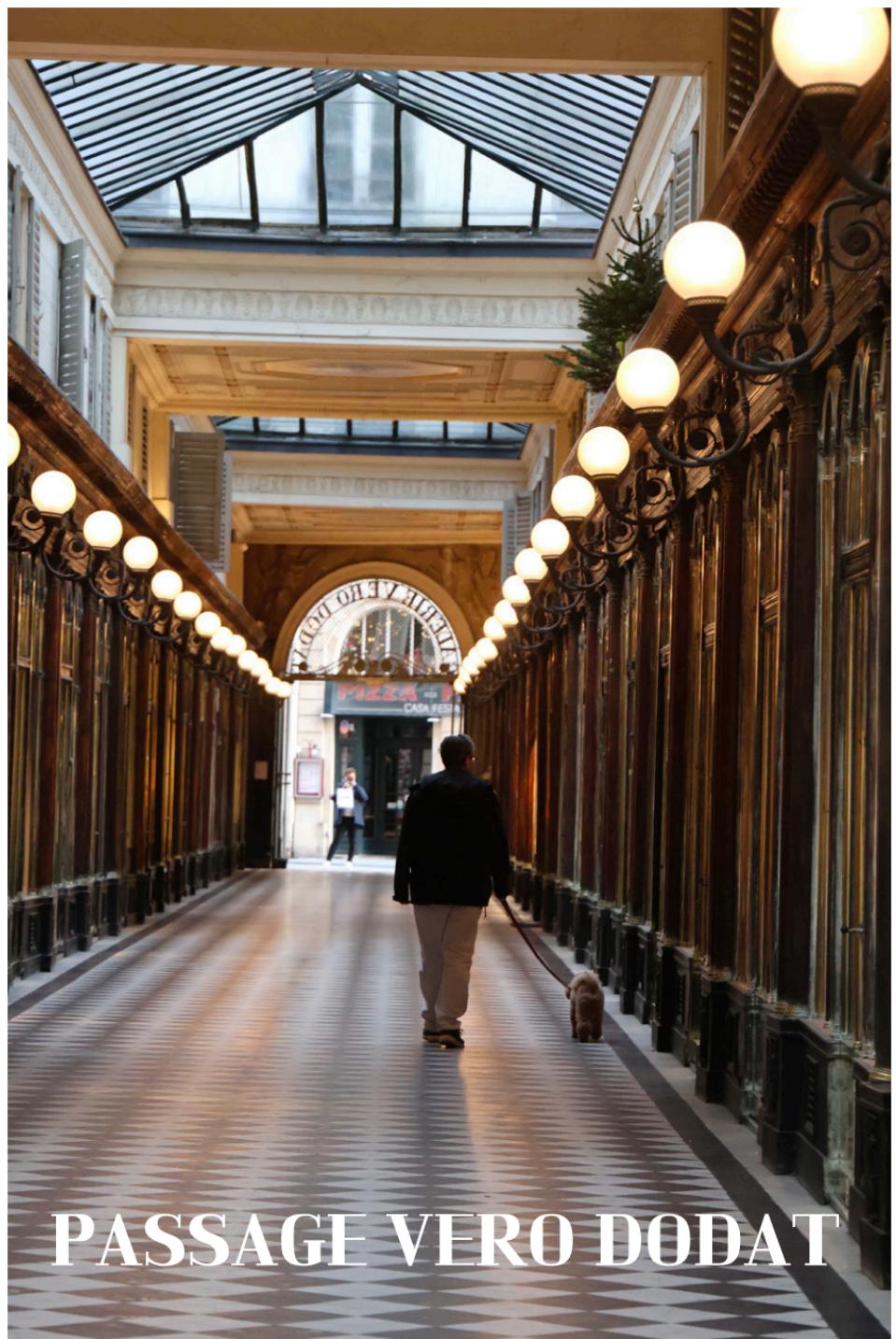
33 ESCALIER 33



러운 태도야말로 파리의 대체 불가능한 멋과 낭만이라
고 생각한다.

시간의 이음새처럼 웅크리고 있는 과거 위에서 눈부
신 오늘이 펼쳐진다. 그 아찔한 대비가 너무나 자연스
러워서 누구나 저절로 시간 여행을 꿈꾸게 된다. 프랑스
동남부의 오트리브 마을에서 돌멩이와 자갈을 주워 무
려 33년간 거대한 궁전을 건설했던 19세기 우체부 페르
디낭 슈발의 묘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시간은 지나가지 않지만 우리는 지나간다.” 마치 파사
주처럼 말이다.



PASSAGE VERO DODAT

Bon Vivant

© 이지은, 2025

발행일 2025년 3월 12일 | 저은이 이지은 | 발행처 모요사

이 저작물의 판권은 저은이와 모요사에 있습니다.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